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임핑 나이너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동출발점)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 박지성 이영표 김두현 박주영 '해외파 4인방' 주말 출격 대기 ... '골사냥' 나선다



<p><b>지성</b></p> <p>‘돌풍’ 헐시티전 선발 출장 기대</p>	<p><b>영표</b></p> <p>7경기 연속 선발 주전 자리 꿰차</p>	<p><b>두현</b></p> <p>부상 완전 회복 블랙번 복귀전</p>	<p><b>주영</b></p> <p>한달여만에 2호골 도전</p>
--	--	--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두현(26·웨스트브롬)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프랑스 무대에 안착한 박주영(23·AS모나코)이 주말 경기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린다. 박지성은 1일(한국시간) 자정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펼쳐질 헐시티와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경기 때 선발 출장 기대가 크다. 웨스트햄전 직전까지 4경기 연속(선발 2차례) 출장했던 박지성은 오른쪽 골키퍼를 입었던 미드필더 마이클 캐리(27)이 한 달 보름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른 데다 같은 포지션의 오언 하그리브스(27)도 무릎 통증을 털고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보여 생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루이스 나니(22)가 최근 활발한 움직임으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박지성으로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줘야 한다. 박지성은 개인적으로도 지난달 22일 첼시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이후 침묵을 지키는 득점포를 가동할 때가 됐다. 10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헐시티는 30일 첼시전에서 0-3 완패를 당했지만 직전까지 6경기 연속 무패(5승1무)로 5위에 올라 있어 맨유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

김두현의 복귀 소식도 반갑다. 지난 9월 27일 미들즈브러와 6라운드 경기 시작 1분 만에 무릎 내측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김두현은 완전히 회복돼 박지성과 같은 시간 열리는 블랙번 로버스와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김두현이 6~8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재활 기간을 단기간 만에 웨스트브롬의 중원사령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김두현은 선발 출장에 교체되거나 후반에 기용돼 컨디션을 점검하고 9일 리버풀과 원정에서 톨타임으로 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오른쪽 풀백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이영표와 주전을 굳히고도 한 달 넘게 골 소식을 못 전한 박주영도 차례로 출전한다. 이영표는 2일 자정 보름과 분데스리가 11라운드 원정경기 선발 출격이 유력하다. 이영표는 30일 FC 팔른전 때 7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 1-0 승리에 일조했다. 박주영은 주말을 넘긴 3일 새벽 1시 크아브르와 원정경기에서 시즌 2호 골에 도전한다. 프랑스 무대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14일 로리앙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박주영은 30일 AS 낭시전까지 7경기 연속 선발로 활약했지만 지금까지 두 번째 골을 사냥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 ‘거미손’ 부활하나

이운재 ‘음주 징계’ 2일로 끝나 ... ‘허정무호’ 승선 가능성

‘거미손’ 골키퍼 이운재(35·수원)가 허정무 감독과 8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기대된다. 허정무 감독은 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신예 미드필더 기성용(서울)을 포함한 사우디 원정 엔트리 23명 안팎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표팀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풀리는 이운재가 허정무호에 재승선할지가 가장 관심거리다. 지난해 아시안컵 음주 과문으로 휘말려 대표 자격이 정지됐던 이운재는 대한축구협회 상설위원회가 지시한 사회봉사 80시간까지 마쳐 2일로 족쇄가 풀린다. 대표 발탁에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이운재도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눈부신 선방을 펼치고 있어 대표팀 합류 기대가 크다. 2002 한·일 월드컵과 2006 독일 월드컵 때 대표팀 골문을 지켰던 이운재는 올 시즌 프로축구에서도 35경기에서 26점을 내줘 경기당 평균 0.74실점으로 14개 구단 주전 골키퍼 중 최고 실력을 뽐냈다. 대표팀 주전 수문장인 정성룡(경기당 평균 0.81·성남)과 김영광(1.00·울산), 염동균(1.52·전남), 김용대(1.92·광주)를 능가한다. 특히 이운재는 지난 8일 포항과 컵대회 4강 플레이오프 승부차기 때 세 차례나 슈트를 막아내며 소속팀 우승에 앞장섰다. 허정무 감독도 지난 5월31일 요르단과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과 홈경기 때 2-0으로 앞서다 끝내 2-2 무승부를 허용한 뒤 ‘이운재 사면론’ 카드를 썼다.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뜻을 접었을 정도로 이운재에 대한 애착이 크다. /연합뉴스

# 찬호 “내년 이적 ... WBC 불참”

귀국 소망 ... ‘선발팀 가고 싶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박찬호(35)가 내년 팀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불참을 시사했다. 박찬호는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다음 시즌에는 팀을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선발로 1년 계약을 원하는 팀이 있다면 내년 시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며 WBC 불참 가능성을 밝혔다. 올해 LA에서 선발과 중간계투를 오간 박찬호는 “다저스가 내년에 나를 선발로 구성할지 의문”이라며 “올해 구원 투수와 선발 백업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를 더 원하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폈다.

그는 “다저스는 나같은 투수가 있으면 나를 백업으로 쓰면서 젊은 선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올해 선발로도 잘했고 선발이 필요한 팀에서 원한다면 가고 싶다”고 이적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박찬호는 그러나 “올해 선발로 나선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와 계약하려는 팀은 1년 계약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팀이 있다면 스프링캠프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WBC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찬호는 1개월가량 한국에 머물며 박찬호기 야구대회 참가 등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신지애 강풍에도 상위권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1R 공동 4위 선전



신중환 퍼팅  
지난 달 31일 영종도 스카이 72 오션코스에서 열린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008 1라운드 2번홀에서 신지애가 신중환 퍼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첫날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했다. 지난달 31일 인천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68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호주 유학생 양희영(19·삼성전자)이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6개를 뽑아내 4언더파 68타로 2위에 자리했다. 6언더파 66타를 친 캐서린 월(호주)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윤재영(21·LG)이 3언더파 69타로 3위, 신지애(20·하이마트)와 재미교포 김초롱(23), 장정(28·기업은행, 임지나(21·코오롱), 김미현(31·KTF) 등이 2언더파 70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이른 아침 비가 내려 30분 동안 경기가 지연됐고 강한 바람이 선수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양희영은 전반에만 3타를 줄인 뒤 10번홀과 11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상승세를 타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남은 4개홀에서 버디 1개를 잡았지만 14번홀(파5)과 17번홀(파3)에서 나온 보기가 육에 터졌다. 신지애도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6번홀까지 짧은 파퍼트를 놓쳐 보기 3개를 했던 신지애는 7번홀부터 9번홀까지 2.5~3m 가량 버디 퍼트를 잇따라 넣어 3개홀 연속 1타씩을 줄이며 만회했다. 13번홀(파4)과 14번홀(파5)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아 타수를 줄인 신지애는 15번홀(파4)에서 다시 1타를 잃어버렸지만 다음 홀(5) 버디로 만회한 뒤 남은 홀을 파로 마무리했다. 신지애는 “연속해서 대회에 출전하느라 피곤했다. 오늘 2언더파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했다. 상금랭킹 2위 플라 크리머(미국)는 까다로운 그린에 적응하지 못해 공동 46위(3오버파 75타)로 부진했고 박세리(31)는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1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 전남 위헌철 4관왕 ... ‘이지석 특별상’ 수상

광주서 열린 전국 장애인청소년체전 막내러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 ‘2008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1천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육상, 씨름, e-스포츠 등 7개 종목에서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미래를 내다보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개최 도시 광주가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1개를 따냈고 경남도가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21개, 경기도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를 차지했다.

‘이지석 특별상’을 수상한 전남 대표 위헌철(18·청각장애) 선수는 청각장애부문 육상 혼성 400m, 남자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4관왕에 올랐고 경남 대표 추혜진(19, 지적장애) 선수는 여자 육상 지적장애 부문 100m와 200m, 400m, 혼성 4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4관왕이 됐다. 이 밖에도 광주 대표 이경대(20·시각장애) 선수, 충북 대표 정은혜(12·여·청각장애) 선수, 대구 대표 김진호(18·지적장애) 선수가 육상 트랙에서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축구 감독 찾습니다”**

**목포시실업팀 창단**

목포시는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과 함께 창단될 목포시 실업 축구팀 감독을 모집한다. 자격은 축구단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35세 이상 55세 이하로 대한축구협회 인증 1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거나 대학·실업·프로팀에서 5년 이상 선수 경력과 1년 이상 지도자 경력에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의는 (061) 270-3251번으로 하면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광주 홈경기 무료 입장**

**K-리그 프로축구 2일 인천 전**

프로축구 광주상무가 2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2일 경기를 포함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무는 인천을 상대로 ‘탈골재’를 향한 막바지 승점 쟁기에 나선다. 3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던 상무는 30일 현재 3승 6무 15패로 승점 15로 역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상무는 홈 고별전에서 광주시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서구민 한마당 축제’도 개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일 (일)**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Utd : 헐시티>(00 : 00), <토트넘 : 리버풀>(02 : 30·MBC ESPN)
- ▲2008 PGA 긴 쉬트 메르 클래식 3R (02 : 30·SBS스포츠·SBS골프)
- ▲08/09 세리에 A(유벤투스 : AS로마) (04 : 30·MBC ESPN)
- ▲08/09 NBA (LA레이커스 : 덴버)(10 : 00·SBS스포츠)
- ▲LPGA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2008 (13 : 00·MBC ESPN)
- ▲08/09 프로농구<오리온스 : KCC> (14 : 50·SBS스포츠), <삼성 : SK>(14 : 45·XSPORTS), <LG : 모비스>(15 : 00·MBC ESPN)
- ▲08/09 여자프로농구<국민은행 : 삼성생명>(17 : 00·SBS스포츠)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 풀럼>(21 : 30·MBC ESPN)

**1일 (토)**

- ▲2008 PGA 긴 쉬트 메르 클래식 2R (02 : 30·SBS스포츠·SBS골프)
- ▲08/09 NBA(09 : 30·MBC ESPN)
- ▲LPGA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2008 (13 : 00·MBC ESPN)
- ▲08/09 프로농구<오리온스 : KCC> (14 : 50·SBS스포츠), <삼성 : SK>(14 : 45·XSPORTS), <LG : 모비스>(15 : 00·MBC ESPN)
- ▲08/09 여자프로농구<국민은행 : 삼성생명>(17 : 00·SBS스포츠)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 풀럼>(21 : 30·MBC ESPN)

**2일 (일)**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Utd : 헐시티>(00 : 00), <토트넘 : 리버풀>(02 : 30·MBC ESPN)
- ▲2008 PGA 긴 쉬트 메르 클래식 3R (02 : 30·SBS스포츠·SBS골프)
- ▲08/09 세리에 A(유벤투스 : AS로마) (04 : 30·MBC ESPN)
- ▲08/09 NBA (LA레이커스 : 덴버)(10 : 00·SBS스포츠)
- ▲LPGA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2008 (13 : 00·MBC ESPN)
- ▲08/09 프로농구 <KT&G : KTF>(14 : 45·XSPORTS), <KCC : 삼성>(14 : 55·KBS 1), <SK : LG>(17 : 00·MBC ESPN)
- ▲2008 K리그 <부산 : 서울>(14 : 50·SBS스포츠·MBC ESPN), <광주 : 인천>(15 : 00·MBC·SBS)
- ▲08/09 여자프로농구<금호생명 : 신세계>(17 : 00·SBS스포츠)